



2022. 8. 24(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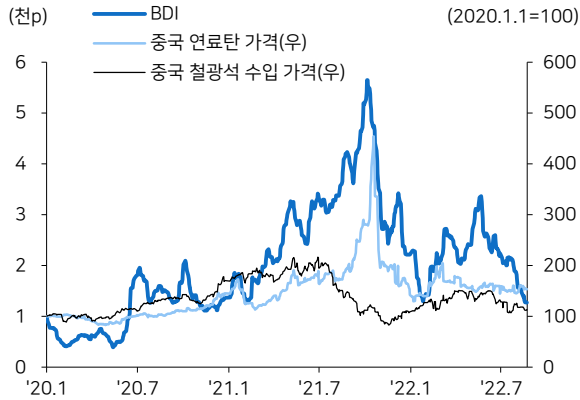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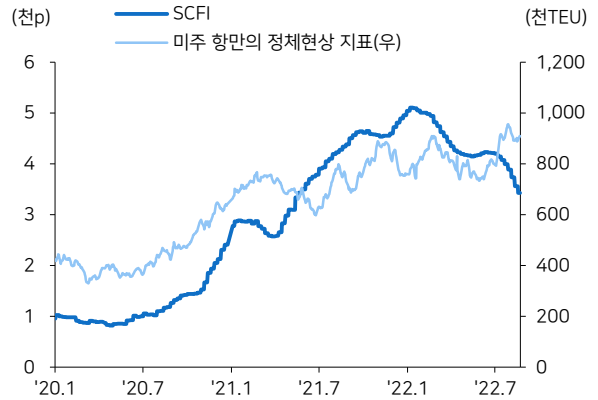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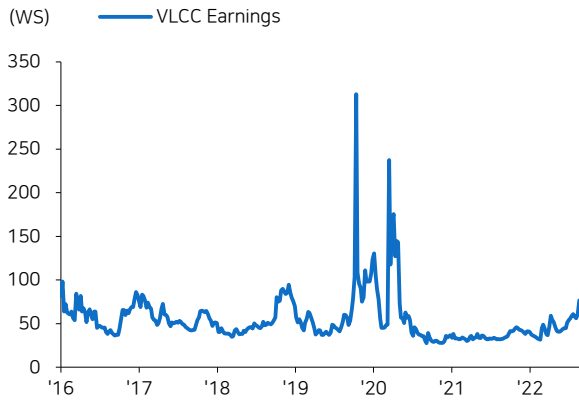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271.0p(+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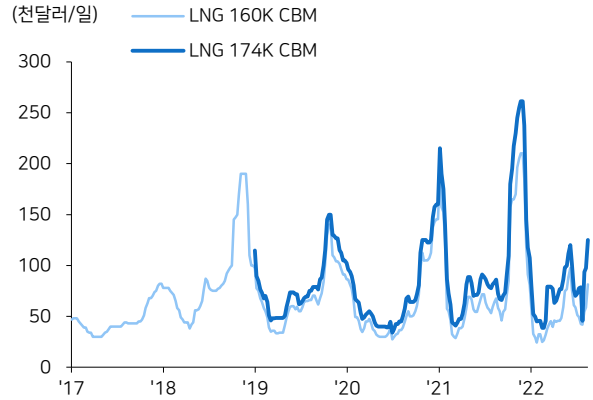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429.8p(-132.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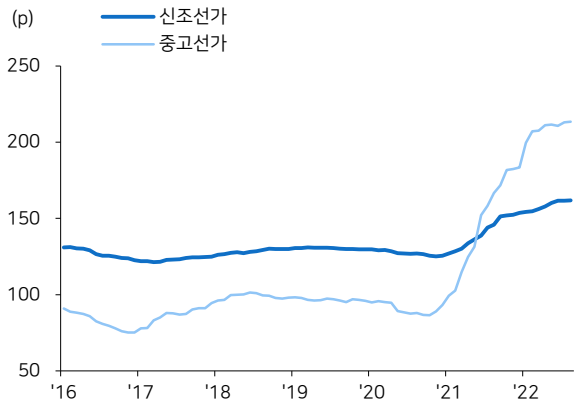
VLCC Spot Rate 76.8p(+16.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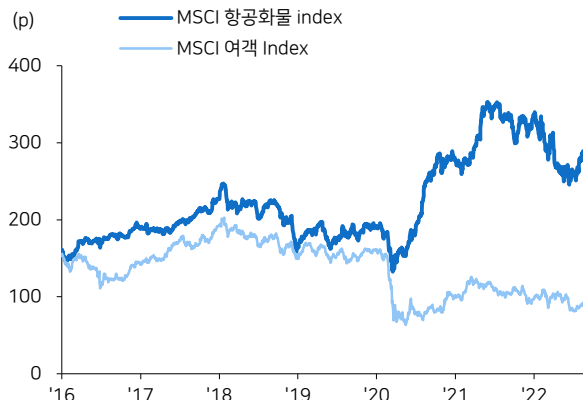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81.5p(+22.8p WoW) 125.0p(+27.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9p(-0.0p WoW) 211.8p(-1.6p WoW)



항공시장 지표 280.5p(-) 86.2p(-)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New Iran exports would have little impact on tanker trade, says BRS

BRS에 따르면 금주 미국이 JCPOA 복원협상 최종안에 대한 답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란 원유 수출물량의 탱커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도됨. 현재 이란 국영 NITC가 38척의 그림자 선대를 운영하고 있음에 기인함. 그러나 노후선 폐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Tradewinds)

유럽형 카자흐 송유관 가동 차질...에너지위기 심화 우려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공급하는 송유관 가동이 차질을 겪으면서 유럽 에너지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됨. 송유관 운영주체인 캐스피언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는 흑해 수송터미널에 있는 계류지점 3곳 중 2곳이 시설 파손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언급함. 이에 정상 터미널 처리능력의 70% 이하만 처리 가능하다고 언급됨. 한편, CPC는 전세계 원유 공급의 약 1%를 담당하며, 러시아 국영 트란스넵트트가 최대주주로 알려짐. (연합뉴스)

Tanker rally threatened by Opec+ cuts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언급하며 탱커시장 강세가 Opec+ 감산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도됨. Opec+는 9월 5일 회의를 앞두고 있음. 감산 가능성, 중국 경기 회복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VLCC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대우조선, '독 점거' 하청노조에 500억원 손해소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6~7월 파업과 생산시설 무단점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에 약 500억원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보도됨. 한편, 업계에서는 납기 준수가 불확실했던 선박 수가 파업 종료 시점에 예상한 5척에서 최근 1~2척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됨. (조선Biz)

Qatargas nearing decision phase for giant offshore compression package

Qatargas가 대규모 North Field Production Sustainability(NFPS)프로젝트 결정 단계에 이르러 몇 주 내로 preferred contractor를 발표하고, 한두달내로 NFPS Package2 EPCI 입찰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한편, North Field East 첫 증설은 287.5억달러규모로 현재 연간 7,700만톤에서 2026년까지 1.1억톤생산으로 확대할 계획임. (Upstream)

BA to cut more than 10,000 flights from winter schedule

영국항공(BA)는 일손 부족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2023년 3월말까지 런던 히드로 공항을 오가는 1만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2023년 3월까지 진행되는 겨울 노선도 8% 축소될 것으로 알려짐. (Financial Times)